

# 클럽월드컵·세계육상선수권...새해 스포츠 엑기스 골라 본다

AFP통신, 5대 스포츠 행사 선정  
6월 FIFA 클럽 월드컵, 울산 출전  
9월 우상혁 높이뛰기 입상도 관심

2025년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과 같은 메이저 스포츠 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다.

2021년에는 도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FIFA 월드컵이 개최됐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열린 것과 비교하면 스포츠계에는 다소 한가한 시즌이 바로 2025년인 셈이다.

그러나 새해에도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이목을 잡아줄 주요 대회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AFP통신은 30일 새해 주목할 5대 스포츠 행사를 소개했다.

먼저 6월 14일부터 한 달간 미국에서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이 2025년 주요 스포츠 행사로 주목됐다.

FIFA는 그동안 6개 대륙의 클럽대항전 챔피언과 개최국 리그 우승팀을 대상으로 클럽 월드컵을 열었는데 올해부터 참가 팀을 7개에서 32개로 늘리고, 개최 주기도 4년으로 바꿨다.

확대 개편 후 첫 대회인 2025년 클럽 월드컵에는 우리나라의 울산 HD가 출전한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인테 밀란(이탈리아),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바이에른 뮌헨(독일),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등 유럽 강호들과 리오넬 메시가 뛰는 인테 마이애미(미국) 등이 우승에 도전한다.

9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하는 세계육상선수권도 2025년 주요 스포츠 행사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남자 높이뛰기에 나갈 예정인 우상혁(용인시청)



AFP통신은 다가오는 2025년 6월 미국에서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을 시작으로 8월 여자러비월드컵(영국), 9월 세계육상선수권(일본)과 라이더컵(미국), 11월 크리켓 경기 디에시스(호주) 등을 '새해 5대 스포츠 행사'로 선정했다. 왼쪽부터 이강인이 속한 파리 생제르맹 선수단과 UEFA에서 우승한 레알 마드리드·우상혁 선수.

의 입상 여부가 국내 팬들의 관심사다.

한국 선수는 나갈 수 없지만 9월 미국에서 열리는 라이더컵은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

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은 격년제로 열리며 스코티 셰플러(미국), 로리 매킬

로이(북아일랜드) 등 세계 톱 랭커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8월 영국에서 막을 올리는 여자 러비 월

드컵,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잉글랜드와 호주의 크리켓 경기 디에시스가 AFP통신의 '새해 5대 스포츠 행사'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 핸드볼 H리그 여자부 내일 개막...SK 강경민 vs 서울시청 우빛나 격돌

광주도시공사, 1월 2일 경남과 경기

2024-2025시즌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경기가 2025년 1월 1일 막을 올린다.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는 남자부가 지난 11월 먼저 개막했고, 여자부는 12월에 열린 아시아선수권 대회 일정으로 인해 새해에 개막전을 치르게 됐다.

8개 팀이 출전하는 여자부는 새해 첫날부터 4월까지 정규리그 3라운드, 팀당 21경기를 소화하며 4월까지 포스트 시즌에 나선다.

개막전은 충북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펼쳐지고 대구, 광주, 경기도 광명, 서울, 부산, 강원도 삼척 등 7개 시도를 돌며 경기가 열린다.

여자부 첫 경기에서는 1월 1일 오후 1시 지난 시즌 우승팀 SK 슈가글라이더즈와 3위 서울시청이 맞대결한다.

SK는 2022-2023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강경민이 공격의 선봉에 나서고, 서울시청에는 지난 시즌 MVP 우빛나가 맞불을 놓는다.

한국핸드볼연맹이 30일 전한 8개 팀 감독들의 시즌 전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SK와 올해 전국체전 우승팀 경남개발공사가 '2강' 체제를 이루고 삼척시청과 부산시청공단, 서울시청이 4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천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대구시청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을 21전 전패로 끝낸 대구시청은 올해



강경민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국가대표 정지인을 선발해 '하위권 탈출'을 노린다.

지난 시즌까지 삼척시청에서 뛰다가 은퇴한 국가대표 출신 김은아 맥스포츠 해설위원은 "SK와 경남개발공사, 부산시청공단, 삼척시청이 상위권에 오를 것"이라며 "대구시청은 김희진이 부상에 돌아오고, 신인 정지인의 영입으로 전력이 한층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우빛나

조은희 맥스포츠 해설위원은 "삼척시청은 중거리 슛 능력이 있는 강주빈과 허유진을 영입하며 공격력이 좋아졌고, 부산시청공단 역시 권한나와 원선필의 가세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1월 2일 오후 6시 청주 SK호크스아레나 경기장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시즌 첫 경기를 갖는다. /연합뉴스

## 갈곳 좁아진 김하성...탬파베이·밀워키 어디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내야수 김하성의 행선지로 탬파베이 레이스와 밀워키 브루어스가 거론됐다.

메이저리그 인터넷 홈페이지(MLB닷컴)는 30일 각 구단에 어울리는 FA 선수 1명씩을 추천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김하성이 탬파베이와 밀워키로 갈 가능성을 제기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활약한 김하성은 지난 8월 어깨를 다쳐 10월 수술을 받았고 2025년 4~5월 정도 복구가 예상된다.

MLB닷컴은 김하성의 탬파베이행에 대해서는 "어깨가 잘 회복된다면 1년 계약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본적으로 탬파베이는 보유한 선수들의 기량 증가에 중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FA 영입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기존 유격수 테일러 윌스와 카슨 윌리엄스라는 유망주도 있기 때문에 김하성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MLB닷컴은 김하성과 밀워키의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1년 정도를 예상했다. 유격수 윌리 아다메스가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떠난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최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행 가능성이 나왔지만 디트로이트는 내야수 클레이버 토레스를 FA로 영입해 차기 행선지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한편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던 내야수 김혜성은 이달 초 MLB 사무국에 포스팅 공시되



면서 한국 시간으로 2025년 1월 4일 오전 7시까지 30개 구단과 입단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태다.

11월 말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혜성은 계약 소식 없이 지난 23일 귀국했다.

현지에서 계속 구단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포스팅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미국행 불발 가능성도 조금씩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기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포스팅은 자동 종료되고 김혜성은 내년 11월 1일까지 다시 포스팅할 수 없다. 이 경우 김혜성은 2025시즌 다시 KBO리그에서 뛰는 가능성이 크고, 키움 김혜성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1회 정기연주회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

일시 : 2025-01-15(수) 19:3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41